



농림부
신임 농림부 차관 박해상



◀ 박해상 차관

정부는 지난 8일 농림부 차관으로 박해상 차관보를 임명했다.

신임 박해상 차관은 1977년 농림부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8여년동안 농산과장, 환경농업과장, 국립식물검역소장, 식량생산국장, 한국농업전문학교장등 농업생산과 식물방역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농업관료이다.

2004년 2월부터 농림부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1948년 이후 시행해 오던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혁, 현실감 있는 정책수립, 집행을 위한 현장확인 행정 적극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

입협상 수행 및 한·미 FTA 대책추진 등 주요현안 등을 원만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보여,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본 궤도로 끌어올리는 등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협상 등 산적한 농정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책임자라는 농업계의 평을 듣고 있다.

한국양계농협
2대 오정길 조합장 취임식



지난 7일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서울 면목동 본점 지하회의실에서 2대 오정길 조합장 취임식을 가졌다.

오정길 신임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로부터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받아 3개조합이 신설합병한 조합”이라 전제를 두며 조합발전을 위해 자립경영 달성, 자기자본 확충, 인화단결을 강조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공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직원들에게도 “협동조합직원으로서 사명감, 창의력과 열정, 성실성을 가지고 임하자”라고 전했다.

오정길 조합장은 지난 6월 29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치러진 한국양계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이영재 후보와 득표수가 1·2차 모두 동수가 나와 정관규정에 의해 당선된 바 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제4회 구구데이 행사 개최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8일 구구데이를 맞아 도심 소비자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닭고기·계란 소비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회에서는 닭고기·계란 지역특미요리 전시시식회와 대행사에 의뢰하여 보다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구데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앰블럼을 개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전국행사로 지역본부별로 구구데이 행사를 추진하며 지역 방송사 및 언론사와 연계하여 구구데이가 전국적으로 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

미국산 가금육 등 잠정 수입검역 중단

농림부에서는 미국 농업부가 미시간주 흑백조(mute swan)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8월 15일 발표함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하었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부는 지난 8월 8일 미시간주 이리호 주변지역의 흑백조에 대한 야생조류 모니터링 검사에서 SI 바이러스를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SI바이러스는 H5형과 N1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고병원성일 가능성에 사전 대비코자 미국산 가금,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에 대해 수입검역 중단을 내렸다.

축산연구소 좋은 닭고기 구별법 소개

대표적인 북(伏)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닭고기에 대해 농촌진흥청 축산



연구소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좋은 닭고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축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국산 닭고기 대부분은 냉장 유통되지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닭고기는 냉동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냉동 상태로 수입된 닭고기는 뼈의 색이 검붉고 고기의 색 역시 윤기가 없는 반면 국산 닭고기는 뼈 색깔이 밝고 껍질을 벗긴 살코기의 색이 옅은 선홍색을 띤다.

닭고기의 경우 대부분 뼈가 포함된 상태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냉동중 닭뼈의 혈색소가 뼈 밖으로 나오면서 산화돼 뼈와 함께 주변 근육이 까맣게 변할 수밖에 없다. 축산연구소 연구결과가 국내산 닭고기가 수입산보다 3~4배 신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등급 닭고기는 고기에 멍이나 피딱지, 물혹이 없는 것이다. 통닭 상태에서는 육안 구별이 힘들지만 부분육일 경우 살코기 색을 살펴 창백한 흰색을 띄거나 흐물거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06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



회장은 '06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를 4일간에 걸쳐 4개 권역별로 이천(8/24, 설봉호텔 크리스탈룸), 천안(8/25, 상록리조트 그랜드홀), 광주(8/29,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구(9/1, 컨벤션센터 306호)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축산현안에 대한 지역 홍보 및 농가의견수렴과 여론조성을 통한 축산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생산자 단체 도·시군 임원, 농축협 조합장, 도·시군청, 지자체의원, 지역 국회의원 등 다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한·미 FTA 특강과 축산현안 토론회를 갖고 9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에 맞춰 전국 시·군에서 동시 협상저지 결기대회를 갖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결의문 낭독은 양계인을 대표하여 김선웅 부회장(24일), 이준동 충북도 지회장(25일), 윤한성 전남 도지회장(29일), 장재성 부회장(10월1일 예정)이 각각 맡았다.

전라남도

내년부터 밀집사육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가축사업 등록농가가 가축사육시설 내에 적정숫자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해 소·양계 300㎡, 양돈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관할 시청·군수에게 등록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04년 축산법 시행규칙에 축산업등록농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고시했다.

전라남도는 농·축협, 축종별 단체 및 시군을 통하여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검역원장, 수의학분야 전문가로 "Who's Who" 등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문일 박사는 수의학분야의 교단경력과 뛰어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후즈후(Who's Who, 과학기술 분야, 2006-2007)에 등재되었다.

후즈후는 세계 3대 인명사전중의 하나로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기술, 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 5만 명을 선정하여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강문일 원장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학장을 거쳐 2005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

로 재직하고 있으며 병리학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여 왔다. 지금까지 강문일 원장은 산업 재산권 6건을 비롯하여 SCI급 연구논문을 포함한 80여 편을 발표하였고 "마우스와 랫드의 감염병" 등의 역저서 5권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검역원 홈페이지, 고객중심으로 리모델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06. 8. 1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존 홈페이지는 검역원 홈페이지로서의 상징성 및 역동성이 부족하여 검역원의 다양한 활동상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된 홈페이지는 검역검사, 가축위생, 수의연구사업 등 검역원의 주요업무를 파노라마로 보여주어 홈페이지 방문자로 하여금 검역원의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인 이미지를 구성 하였으며, 노년층을 위한 돋보기 기능 등 기능개선 및 HACCP 사이트 확대, 검역탐지견 센터 소개 등 업무콘텐츠를 강화하였다. 검역원은 앞으로도 기관의 위상 제고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펄프몰드협회 협회 발전방안 모색

한국펄프몰드협회(회장 신광섭)은 지난 17일 속리산 레이크 호텔에서 한국펄프몰드협회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양계협회 김동진 홍보팀장이 '양계산업현황과 전망'을, 부산시 금정구청 박병규 사무관이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이철 감사의 '펄프몰드 시장현황', 차성윤 이사의 '협회 공동사업'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신광섭 회장은 펄프몰드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펄프몰드 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회용 종이난좌 사용의 중요성은 물론, 플라스틱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펄프몰드 사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되었다. 또한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란 후라이 보급 계획도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농·축·수산물식자재 대토론회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우윤근 국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 전남광양·구례) 주최로 농·축·수산물-식자재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자리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활성화 방안,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집단급식 안전성제고, 식품안전처 신설문제, 한·미 FTA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郭東卿)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장,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급식 위생·안전, 우수 식품·기기 사용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2일(화)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식재료 유통 체계 마련과 위생적인 급식시설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에 단체급식 위생·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식품 및 기기를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전시식품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과 국내에서 개발한 특수공법으로 생산된 쌀과 천연염 등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재료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전시기기로는 감마선 살균·

식품조사 기기, 식품검수에 필요한 잔류농약 및 미생물 속성 분석기, 손(발)세정시스템·소독보관고 등 HACCP 기기, 위생적인 급식용수 확보를 위한 소독수 생성기, 오존 살균 정수기와 항균 바닥재 등 단체급식소에서의 위생사고 방지를 위한 기기들이 선보였다.

양계분야에는 GET(대표 이철)에서 친환경적인 난좌를 선보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춘천닭갈비협의회

2006 춘천 닭갈비축제

2006 춘천 닭갈비축제가 11일 춘천시 삼천동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춘천닭갈비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열리며 춘천의 향토먹거리 전국 소개는 물론 지역의 축제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킨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전시행사로는 희귀 닭, 미계 토종닭 등을 실물 전시하고 닭갈비 소스 발표와 시식회 등이 진행되었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지역 문화 예술팀과 단체의 공연, 시민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와함께 닭갈비 빨리 자르기, 날계란 빨리먹기, 시민 닭싸움, 닭울음 경연대회 등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또한 다도예절 체험과 목공예, 찻흙공예, 짚풀공예, 무선자동차 장비전시 및 시연 등 체험행사와 닭관련 음식조리 시식회, 닭갈비 축제 사진전 등 부대행사, 춘천닭갈비 발전방안 학술 세미나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었다.